

學校圖書館의 멀티미디어화를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School Library into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金容喆,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Kim, Yong Chul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인쇄매체 중심의 학교도서관에 전자매체, 영상매체, 컴퓨터학습프로그램(CAI: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및 첨단 통신장비를 갖추어서 교수 매체센터 체제로 전환하여 정보화 시대의 '열린 교육'과 '자료중심 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하여 전국 각, 시, 도에서 示範運營을 하고자 한다.

I. 서론

情報化 시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情報와 知識을 教科書에 다 수록할 수도 없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專門的인 知識과 기술을 교사가 다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 교육(Textbook-based teaching)'은 '자료중심교육(Resource-based teaching)'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專門化, 多元化를 추구하는 21세기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個性的, 創造的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중심의 획일적인 注入式 교육을 止揚하고 학생·개개인의 적성과 능력과 知的 수준에 맞게 학생중심의 '열린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必然的이다.

'자료중심 교육'과 '열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教授媒體와 각종 視聽覺機教材를 갖춘 종합적인 교육환경의 조성이 선결 과제이

다.

즉, 전통적인 인쇄매체, 영상매체, 전자매체와 첨단 컴퓨터 통신장비를 갖춘 교육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종래에는 情報와 知識를 기록하는 기록매체가 종이위에 기록하는 圖書의 형태로 學校圖書館에 소장하고 운영하였으나 오늘날에는 科學 문명의 발달과 첨단기술의 개발에 의해서 磁氣 테이프와 CD ROM과 같은 획기적인 記錄媒體가 개발되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첨단 매체들은 文字와 함께 음성, 映像, 애니메이션 등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쇄매체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첨단 매체들을 학교도서관에 소장하고 教師와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教授·學習의 효율화를 기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學校圖書館의 멀티미디어화를 조속히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2. 情報化 시대의 學校圖書館

2. 1. 學校圖書館의 管掌 部署

教授·學習 지원과 讀書教育, 情報이용교육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學校圖書館이 30여 년간 制度의 不在속에 방치되어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습실로 전락되어 파행적인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學校圖書館이 學校教育에 필수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有名無實하게 된 원인은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專擔部署의 不在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어느 機關이나 組織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을 위한 政策을 立案하고 그 실현을 위한 行, 財政的인 支援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有名無實한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情報社會의 시대적 요청과 教育 情報化를 위해서 教育部에 教育情報管理局가 新設되어 학교도서관을 管掌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후로는 學校圖書館 본연의 사명인 教授·學習의 지원과 情報利用 교육 및 讀書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學校圖書館이 선진국과 같이 '資料 中心 교육'과 '열린 교육'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각 시, 도 및 지역 교육청에도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獎學士(官)를 배치하여야 實效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2. 學校圖書館의 職制

2. 2. 1. 司書教師 배치현황

현재 초등학교 5,772개교중 사서교사가 단 1명도 배치되지 않고, 중학교 2,691개교중 겨우 36명의 司書教師가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의 1.3%에 그치고, 고등학교 2,025개교중 126명의 司書教師가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의 6.2%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는 초, 중, 고등학교 10,488개교중 162명의 司書教師가 배치되어 있어서 1.5%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가까운 日本에 비교해 볼 때 터무니 없이 부족한 현상이다. 일본은 초등학교 도서관에 1.9인(1개 학교도서관당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0%), 중학교도서관에 1.9인(1개 학교도서관당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0%), 고등학교 도서관

관에 3.9인(1개 학교도서관당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390%)이 배치되어 있어서 학교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在籍學生 1,000명 이하의 학교도서관에는 1.7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1,000명 이상의 學校圖書館에는 2.7명이 배치되어 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사서교사의 자격 기준도 문헌정보학 전공자로서 碩士學位를 취득하고, 2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어야 사서교사가 될 수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에는 職能別로 主任司書教師(Coordinator), 매체전문가(Media specialist), 실기교사(Technician), 보조원(Aids)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와 같이 각기 전공영역별로 직원을 구성하여 학교도서관(School Library Media Center)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의 教授學習을 충분히 지원하고 그들의 다양한 要求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2. 2. 2. 司書教師 배치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초등은 全無하고, 중등은 1.3%, 高等이 6.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1개 學校圖書館에 1명씩만 司書教師를 배치한다고 해도 10,320명을 임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司書教師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0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초등에는 36학급 이하의 사서교사, 겸임사서교사, 또는 사서교사중 1인을 두며, 36학급이상의 경우에는 1인의 사서교사, 또는 1인의 겸임사서교사와 1인의 실기교사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 등의 경우에는 24학급미만의 경우에는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 각 1인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해서 사서교사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규정은 별도의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 까지 유용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적용을 하고 새로운 시행령이 제정되면 여기에 준해서 임용을 해야 할 것이다.

종래에는 知識이나 情報를 기록하는 記錄媒

體가 종이위에 기록하는 圖書形態이었기 때문에 圖書만을 소장하고 운영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종이보다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磁氣디스크와 CD ROM과 같은 첨단 記錄媒體가 개발되어 文字나 그림뿐만 아니라 음성과 映像 및 애니메이션까지도 기록할 수가 있어서 획기적인 기록매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첨단의 기록매체들도 학교도서관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 96년 8월 20일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學校圖書館의 멀티미디어화'를 教育改革案으로 제안하게 된 것도 '열린교육'과 '자료중심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情報과 知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보의 增加量을 보면 1665년까지 축적된 정보의 양이 1900년에 2배로 증가되고, 다시 1950년에 4배 증가되고, 1960년에 다시 2배로 늘어났다는 調査, 보고가 있었다. 처음에 정보의 양이 2배로 증가하는데 245년이 걸렸으나 다음에는 50년만에 2배로 늘어났고, 다음에는 정보의 양이 4배 증가하는데 10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數를 보아도 1975년에 301종이었던 것이 1993년에는 27배 증가한 8,261종이었으며, 레코드 數는 1975년에 5천 200만종이었던 것이 1993년에는 107배 증가한 55억 6천 400만종으로 증가한 것이다. 불과 18년 사이에 情報량이 107배로 증가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찰해 볼 때 '情報의 폭발' 또는 '정보의 홍수'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와 知識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司書教師가 學校圖書館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함은 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3. 學校圖書館의 현황과 개선 방안

學校圖書館의 3대 요소인 司書教師, 資料, 施設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한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學校圖書館이 가장 잘 발달된 미국의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School Library Media Center)를 비롯하여 선진국의 제도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새로운 模型을 개발하여 지역별로 각급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學校圖書館의 멀티미디어화'에 관한 선행 연구논문을 비롯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론적 배경과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학교도서관이 가장 잘 제도화된 미국의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School Library Media Center)'의 실제적 운영 방법과 시설, 자료, 機器, 司書教師의 자격과 역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를 위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3. 1. 情報社會에 있어서 學校圖書館의 使命

정보화 시대의 학교도서관은 전통적인 인쇄매체는 물론 첨단기술에 의해서 새롭게 개발되는 CD ROM 형태의 뉴 미디어들을 수집하고 활용하며, 情報통신망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쉽고 친근하게 여기며 情報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유용성 등을 직접 시범· 활용하여 그 유용성을 몸소 실습을 통해 체감하게 만들어 情報화 시대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3. 2. 讀書교육을 통한 人性教育

3. 2. 1. 讀書을 통한 人格陶冶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讀

짧은 배움의 기본이며 삶의糧食임에 틀림이 없다. 한 권의 책이나 한 귀절의警句가 人生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讀書教育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知識과 情報를 얻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 바로 讀書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첨단 記錄媒體가 개발되고 통신기술이 발달하더라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情報와 知識이 저절로 인간의 머리 속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記錄한 情報를 判讀하는 讀書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讀書는 創造의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창조적 思考와 讀書는 뗄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人間은 독서에 의해서 思考하고, 思考하기 위해서 讀書하는 것이다. 사고하는 방법을 독서에서 배우고, 독서를 통해서 사고하게 될 때 비로소 사물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빠른 폭넓은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며, 나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창조적 思考能力을 涵養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린이 개개인의 人格을 도야하고, 각기 다른 개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계발해서 각자의 自主性과 獨創性을 길러줌으로서 보람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3. 2. 2 讀書療法을 통한 非行 청소년 善導

고도 産業社會에서 情報社會로 이행되면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되었지만 금전 萬能主義와 價値觀의 전도로 인하여 非理와 범죄가 만연되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 범죄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청소년 범죄중에서도 학생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66.4%나 된다는 사실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처벌이나 단속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妙策은 없다. 생기발

랄하고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들의 情緒를 醇化하고 稟性을 도야하는 장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3. 2. 3. 취미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교육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비디오방, 전자오락실, 노래방, 만화가게, 당구장 등에 가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有害環境이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천진난만하고 호기심에 가득찬 청소년들에게 보지 말고, 가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일변도의 교육을 한다고해서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은 自明하다. 생기발랄하고 활동적인 청소년들이 부모와 教師가 시키는 대로 오로지 教科書만 읽고 외우고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금지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代案, 즉, 교육의 場을 마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다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시오'라고 구호를 외치고 標語를 써 붙이는 것보다는 필요한 자리에 쓰레기통을 놓아 주어야 實效를 거둘 수 있듯이 반드시 代案을 제시해야 한다.

4. 학교도서관의 職制

4. 1. 겸임 司書教師

현재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司書教師는 일반 教科教師가 담당하는 겸임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만을 담당하는 전담사서교사와 實技教師(사서)가 있다. 교과를 담당하면서 도서관 운영을 담당하는 겸임사서교사의 경우는 학교의 업무분장상 사서교사일뿐 실질적으로는 사서교사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授業을 준비하고 수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자료의 선택, 구입, 정리, 관리, 전산화, 대출, 이용지도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또한 전담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열성과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또한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實效를 거두기 어렵다.

둘째, 司書教師의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이론과 실기 등 專門性의 결여로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자료가 단순한 도서뿐인데도 가장 기본적인 分類나 目錄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立證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분류나 목록이 되어 있으나 기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재분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이제부터는 모든 도서관의 자료를 전산화해야 하는데 圖書館 電算化에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교과 담당 교사가 담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잠정적으로 겸임의 경우에는 주당 수업시수를 輕減하여 10시간 이내로 하고 재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 시켜서 다양한 教授媒體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教授·學習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1. 2 專擔사서교사

4. 1. 2. 1 사서교사 배치현황

현재 전담사서교사는 초등학교 5,772교중 단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중학교에 2,691 개교중 겨우 36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의 1.3%만이 배치됨으로써 2,655개교는 전혀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고등학교 2,025 개교에 126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6.2%에 지나지 않고, 1,889개교에는 단 한 명도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초, 중, 고등학교 10,488교중 162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1.5%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

(School Library Media Center)에 주임사서교사(Coordinator), 매체전문가(Media specialist), 실기교사(Technician), 보조원(Aids)을 도서관 업무의 전문영역에 따라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주임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매체전문가는 각종 시청각 기기를 활용하여 교과교사에게 필요한 각종 교수매체를 제작, 또는 이용지도를 담당한다. 실기교사는 주임사서교사와 매체전문가를 도와서 교수매체를 제작하고 각종 기기의 운반,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보조원은 일반 시설, 자료의 관리, 대출, 문서 수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도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司書教師는 미국과 같이 도서관 업무의 전문 영역 별로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주임사서교사(Head of Department), 인쇄매체 전문가(Library Coordinator), 비도서자료 전문가(Media coordinator), 시청각매체전문가(AV Coordinator) 등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부 4년과 대학원 2년의 전문과정을 거쳐서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실기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우리의 현실은 사서교사 양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너무나 미흡하다. 단적인 예를 들면 6년간에 걸쳐서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할 사서교사가 겨우 2개월 강습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어떻게 전문성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시, 도교육청에서는 두달간의 강습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司書教師에 대한 일반 연수를 실시해서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자질을 함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연수는 실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격연수만을 실시함으로써 사서교사의 자격증만 남발한 결과가 되었다.

그 구체적인 예로써 1990년도부터 1996년까지 7년동안 4,214명에게 사서교사 자격증을 수여한 것이다.

사서교사·자격증을 수여하는데 2개월간의 출장비, 강사료, 운영비 등을 합하면 적어도 1

인당 100만원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무려 40억원이라는 엄청난 연수비용과 막대한 人力을 투자한 셈이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성한 4,200여명의 사서교사중 1996년말 현재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겨우 168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나머지 4,000여명의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어디로 갔는가? 현재 전국 32개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문헌정보교육과에서 양성하는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1년에 200명 이상 배출되고 있다. 자격연수를 거쳐서 양성한 4,200여명의 자격증 소지자와 학부과정을 거쳐서 양성한 1,400여명의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5,600여명 중에서 7년동안 단 1명의 사서교사도 임용하지 않으면서 무슨 이유로 40억원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人力을 동원해서 司書教師 資格研修를 실시하였는가? 또한 사서교사가 이와 같이 필요하다면 시, 도교육청은 당연히 교육부에 사서교사 배정 요청을 하고, 司書教師를 임용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열린 교육'과 '자료중심 교육'을 하는데 이바지 했어야 할 것이다.

4. 1. 2. 2. 전문직 사서교사의 양성

그러므로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 제국에서는 사서교사의 자격기준을 教師로서의 자격과 司書로서의 자격, 즉 이중자격(Dual qualification)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司書教師는 실제로 시청각 기교재의 제작, 관리, 이용지도 등은 물론 독서교육이나 정보이용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수학습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자의 적성과 취향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서 素質과 創意力을 계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사서교사는 教科課程과 수업에 필요한 문헌자료와 함께 각종 시청각 기교재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실기를 체득하여,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수행과 교육목표 달성에 이바지하여야 한

다.

司書教師를 양성하는 文獻情報學科나 文獻情報教育科에서는 전문직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반드시 각종 시청각 기교재의 이론, 제작은 물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검색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

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교육공학(3학점)

교수매체 제작 I(3학점)

교수매체 제작 II(3학점)

미디어 센터 경영론 I(3학점)

미디어 센터 경영론 II(3학점)

독서교육 I(3학점)

독서교육 II(3학점)

교재연구(3학점)

情報檢索(3학점)

이상과 같은 강좌를 운영하여 실제로 교수매체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체득케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서교사의 격을 낮게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서교사는 1급과 2급의 자격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초등과 중등의 자격구분 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사서교사는 단순히 도서의 구입, 정리 및 관리 등의 단순 업무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사서교사는 교과담당, 교사와 같이 심화 과정이 없다는 이유로, 1, 2급의 자격 구분도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승진의 길도 막혀 있는 것이다. 먼저 教授媒體를 통합하여 學校圖書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서, 전문적으로서의 사서교사의 위상을 정립하여, 그동안 너무도 뿌리깊이 박혀 있는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사서교사 본연의 교육적 역할을 활성화시켜서 "학교도서관이 명실공히 학교 교육의 심장부"가 되도록 발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서교사의 주된 임무인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단에서 직접 수업을 담당하여 사서교사가 먼저 교수매체의 사

용법과 효과적인 교수법을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서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려면 가르쳐야 할 교과목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사서교사 가르쳐야 할 고유교과로 '정보와 매체'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정보와 매체'를 정보이용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4. 1. 2. 3 專門職 사서교사 배치 기준

사서교사 배치를 위하여 1997년 2월 28일자로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299호)이 개정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 연차적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사서교사 배치기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06호, 1988. 8. 16)」에 나타나 있는 규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4. 2. 學校圖書館의 資料

학교도서관의 자료는 첫째로 교과내용과 일치되고 연관되는 자료를 비치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이용방법을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는, 학생들 각자가 그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자료를 찾아 이용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준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문명과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오늘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머지않아 진부한 것이 되고, 나날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학생들 각자가 수시로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찾아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개별학습(Individualized Instruction)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학습에 필요한 일반 도서, 연속간행물, 영화필름, 비디오테이프, 음반, 투시화, 차트, 마이크로피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교수매체를 제공하고, 그 이용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參考文獻

金正昭; 學校圖書館媒體센터論.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3.

허병두, 열린 교육과 학교도서관. 서울, 고려원미디어, 1993.

Loertscher, David V. Taxonomies of the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 1988.

Prostano, Emanuel T.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1987.